



KP&I 2006년 보험요율 인상률 '제로' 결정

자산 성장과 조합원사 손해율 크게 개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대표 이윤재)은 2006년도에 보험요율 인상률을 0%로 하여 전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민현 KP&I 전무이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해외 P&I클럽들은 5~15%의 일괄인상을 발표한 바 있지만 KP&I 클럽의 경우 최근 자산이 괄목하게 성장하고 조합원사들의 손해율도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회원사의 경영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2006년도 보험료 일괄인상률을 제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2005년 8월에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예상손해 규모가 800억달러에 육박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해상보험을 포함하여 각종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해상보험의 경우는 최근 운송인이나 선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해외P&I클럽들은 내년도 보험료에 대해 개별 이재율에 따른 인상과 재보험료 인상분에 따른 인상을 추가하여 5.0%에서 15.0%까지 일괄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은 KP&I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험요율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KP&I의 경우는 오히려 업계의 특별출자금과 정부의 출연금 등에 힘입어 자산이 크게 늘어났고 회원사들의 사고율 감소로 손해율도 크게 개선되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무국의 생각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강제보험제도가 점점 확대 되

는 추세이다. 이러한 강제보험제도 확산은 해외 P&I클럽들의 보험료 인상과도 맞물려 점점 선사들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KP&I와 일본P&I클럽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외P&I클럽들의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을 제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러시아, 내년 TSR 운임 30% 인상

TSR(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운임이 내년에 30% 인상될 것으로 보여 국내 수출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러시아철도당국은 국제유가 급등과 철도수지개선을 위해 현재 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500달러~3,900달러 수준인 부산·핀란드간 TSR 운임을 4,600달러~5,000달러로 30%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수출업계는 523억원의 물류비를 추가 부담해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TSR 운임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화물을 해운운송루트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공급 리드타임증가와 이에 따른 판매기회 상실, 수출물량감소, 도착지 재고부족현상, 컨테이너 재작업등의 추가되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TSR이용 하주와 긴급대책협의를 거쳐 12월14일 러시아철도청에 과도한 운임인상 계획의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러시아 당국에 내년도 과도한 운임인상계획을 재고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